

## 권두언 - 생명의 존엄성

박근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원목실장

**인**간이 존엄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어떤 사물이나 다른 동물보다 더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존엄하다는 말은 정확히 무엇 뜻하는 것일까?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하느님의 모상 Image of God 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느님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하므로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학적인 인간의 존엄성 말고 그냥 한 인간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어디서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치들과의 대립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은 존엄한 거야 라고 말할 때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근거는 무엇일까?

며칠 전 아침, 중환자실을 지나가는데 어떤 환자의 부인이 남편의 상태가 어제 대세 이후 많이 호전되었다고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 손을 꼭 붙잡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자매의 감정에 깊이 이입되는 느낌을 받았다. “천만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니 좋아지겠죠. 힘내세요!” 하고 돌아서면서 ‘생명’이란 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반 죽음이었던 이 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기쁨

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 남편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살아있다는 것’ ‘죽음의 귀로에서 살아난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회복 되었다가도 다시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다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진리이고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찬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더 나은 판단도 하고, 서로 친밀성을 나누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원목사제로 있다 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으로 걸어가는지 볼 기회가 많다. 엄청난 질병의 고통과 그로 인한 인간의 신음을 잘 알게 된다. 또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면 느끼게 되는 환자의 두려움과 좌절, 환자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압박감 등을 보게 된다.

그래서 환자들의 영적인 도움을 위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죽음을 넘어선 신앙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원목자 또는 교회의 사제 수도자는 죽음의 예찬론자처럼 되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 삶의 완성은 하느님 나라에서라고, 분명히 맞는 말이고 가슴에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 사는 삶은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인가?

아니다. 나는 그날 오전에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존엄한 이유로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자신을 넘어선 새로운 창조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친밀한 유대감을 갖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도 가능한 것이구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잘 생긴 사람이나 못 생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있으니까 존엄한 것이구나.

결국 신앙이 말하는 죽음을 넘어선 희망도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래 이제는 자신 있게 살아나라고 말해야 하겠다. 살아나라고, 죽음을 만나게 되더라도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살아있는 것이 인간이지, 죽음이 인간은 아니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은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에 한 인간이 참으로 존엄한 이유를 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호스피스 봉사자

- 임동후 루가 -  
(성 바오로병원 봉사자)

자주색 저녁노을이 자욱 깔린 곳  
침묵만이 미덕인 심연의 공간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끈 차마 놓지 못해  
꿈의 꽃밭에 씨 뿌리는 작은이들,

깨진 상처에는 참기름을 붓고  
터진 웅이에는 들기름을 바르고  
때론 속눈물 태연으로 가장하고  
영킨 실타래 한 올 씩 풀어가요,

반딧불이 꿈지보다 작은 빛으로  
귀뚜라미 목청보다 낮은 음으로  
연두색 가운 입고 자비 구하는  
사랑 강에 영혼 행구는 호스피스 봉사자